

周邊環境研究

ASEAN과 周邊勢力(美·蘇·中·日)
과의 關係展望

보 관 용

(관 리 과) 1/3

國土統一院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安保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環境研究

ASEAN과 周邊勢力 (美·蘇·中·日)
과의 關係展望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SEAN and
Major Powers (USA. USSR. PRC. & Japan)



研究責任

金 國 振

(略歷)

延世大卒 (1963)

Hawaii大 博士 取得 (1977)

現 外交安保研究院 助教授

刊行責任

金 泳 植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序 論	3
2. 地域協力機構로서의 ASEAN에 對한 評價	5
가. 沿革	5
나. 機構의 目的	7
다. ASEAN의 組織構成	10
라. ASEAN의 財政狀況	16
마. ASEAN프로젝트 : 実績 및 運營現況	18
바. ASEAN에 對한 評價	22
3. ASEAN과 周辺勢力과의 關係	29
가. 美國과 ASEAN과의 關係	29
나. 蘇聯과 ASEAN과의 關係	34
다. 中共과 ASEAN과의 關係	37
라. 日本과 ASEAN과의 關係	40
마. ASEAN諸國의 対応	44
4. 結論 : 要約 및 展望	46

I . 序 論

1967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일랜드」 등 非共産 5個국에 依해서 創設된 ASEAN (東南亞國家聯合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은 地域協力機構로서 11年을 맞이 했다.

그 동안 ASEAN의 周邊 國際環境은 創設當時에 比하여 여러가지 側面에서 크게 변모하였다. 「베트남」 戰爭의 終了와 同時에 「인도차이나」의 3個共産國家의 出現, 이 地域에서의 美國勢力의 漸進的 後退趨勢, 日本의 過度한 經濟的 浸透 및 中·蘇의 치열한 勢力角逐등등 ASEAN은 急變하는 周邊情勢의 變化속에서 自己適應(self-adaptation)의 論理를 展開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ASEAN은 初期의 文化·經濟協力 中心의 體制에서 政治的·安保的 協力體制에로의 擴大·改編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諸般 制約要因으로 因하여 ASEAN協力 體制의 主軸은 文化·經濟協력으로 되어 있다.

本論文의 目的은 急變한 情勢變化의 挑戰에 適應·發展하는 ASEAN協力體制와 ASEAN協力體制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周邊 勢力—美·蘇·中·日—과의 關係를 分析·展望하는데에 있다.

이와같은 目的을 爲하여 第二章에서는 ASEAN協力體制를 現實的 評價에 重點을 두고, ASEAN의 沿革, 組織目的, 組織機構, 財政狀況 및 ASEAN에 依해서 完成된 또는 推進되고 있는 프로젝트등을

檢討하였다.

第三章에서는 周辺勢力(美·蘇·中·日)이 ASEAN 協力体制에 미치는 影響이 逆으로 ASEAN이 이들 周辺勢力에 미치는 影響보다 크다는 假定下에 이들 強大國의 視角에서 ASEAN에 대한 利害關係를 檢討하였다. 아울러 ASEAN 諸國의 周辺勢力의 相異한 利害關係에 대한 現實的인 適應 및 対応方向을 檢討하였다.

第四章 結論에서는 ASEAN 協力体制과 周辺勢力(美·蘇·中·日)間의 關係要約과 展望을 試圖하였다.

2 . 地域協力機構로서의 ASEAN 에 대한 評價

가. 沿革

ASEAN 은 순수한 東南亞國家間 努力에 의해서 1960年代初에 誕生된 두개의 地域協力機構 即 "AS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와 "Maphilindo" (Malaysia, Philippines, and Indonnesie)를 前身으로 하여 擴大發展된 東南亞國家間 地域協力機構이다. "ASA"는 「마레야」 「필립핀」 「타이랜드」三國外相이 1961년에 開催된 방콕會議에서 三國間 및 文化協力を 위한 "방콕宣言" (Bangkok Declaration)을 채택함으로써 同年 6月 31日부터 公式發足하였다.

한편 ASA와는 별도로 1962年 當時 필립핀 마카파칼大統領은 마라야統治權을 「사바」(Sabah)와 사라왁(Sarawak)地域에 擴大시키는 마레이시아聯邦制 創設을 저지할 目的으로 마레이民族間 "自由로운 聯盟制" (a loose Cenfederation)設立을 提案하였다. 翌年 6월에 開催된 마닐라會議에서 「인도네시아」 「마레이시아」 「필립핀」三國外相은 "Maphilindo" 機構設立에 合意하였다. 그러나 同機構는 마레이시아聯邦國의 「사바」 및 「사라왁」地域의 統合을 둘러싸고, 인도네시아는 「사라왁」, 그리고 필립핀은 「사바」地域에 대하여 各己 自國의 領土權을 主張함으로써 三國間 領土紛爭으로 번져 出沒한지 半年도 存続치 못하고 1963年末에 流産되

고 말했다. 이 결과 1960年代初에 순수한 東南亞國家만에 의해서 設立된 두개의 地域國家中 ASA만이 「타이-말레이시아」 또는 「타이-필리핀」식의 兩國間 「체널」을 통하여 各種 프로젝트를 運營, 活動을 持續하였다. 이와같은 ASA協力を 위한 「타이랜드」의 主導的 努力과 「사라왁」領土紛争과 關聯, “打到마레이시아”政策 (gangjang Malaysia policy)의 主役을 담당했던 인도네시아 스카르노大統領의 失脚 (1966年)은 이들 東南亞國家間에 地域協力の 基盤을 다지는 和解의 새로운 契機를 이루었다. 이와 한편 「싱가포르」는 1965年 말레이시아聯邦에서 分離, 獨立國이 되었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間 領土紛争의 争点地域이었던 「사라왁」住民들은 國民投票에 依拠, 말레이시아聯邦의 一部로 存続할것을 選擇하였다.

1967年度에 들어서면서 5個國 東南亞 非共產國家, 即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랜드」 「싱가포르」간의 關係改善의 必要性을 切感한 인도네시아의 「아담·마리크」外相은 ASA를 代置하는 새로운 ASEAN構想到에 着手, 「타이랜드」의 「타나트·코만」外相의 同意를 구하였다. 이 결과 이들 兩國外相은 ASEAN構想을 위한 「타이-인도네시아」共同案을 準備, 이를 具體化시키기 위하여 1967年 8月初에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外相을 「타이랜드」의 海邊休養地인 「방사엔」 (Bangsaen)에 招請하여 ASEAN構想을 協意, 東南亞 5個國外相들은 1967年 8月 8日 “ASEAN宣言”을 채택, ASEAN을 公式 發足시켰다. 同年 8月末에 開催된 ASA外相

會議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타이랜드」 3 国外相들은 ASA 를 中斷시킬것을 合意함과 同時에 모든 ASA 프로젝트를 新規로 誕生된 ASEAN 主導下에 遂行할 것을 決議하였다.

이와같은 過程을 통하여 設立된 ASEAN 은 設立年度인 1967 年부 터 1976 年 10 年間은 한 地域協力機構로서 公式的인 事務処 (Secretariat) 또는 事務總長 (Secretary-General) 도 갖지 않는 非公式 베이스로 運營되어 왔다. ASEAN 組織을 위한 會員國 間에 체결된 條約도 없었음은 勿論이다. ASEAN 國 外相會議에서 公式的으로 認可되지 않았던 많은 活動들이 ASEAN 名目으로 行해졌 다. 그러나 ASEAN 은 1976 年 7 月에 開催된 ASEAN 5 個國 「발리頂上會談」 (Bali Summit) 를 契機로 그 運營에 있어서 새 로운 局面에 접어들게 되었다. 「발리」頂上會談에서 5 個國 ASEAN 首腦들은 새로운 ASEAN 協力を 위한 「親善 및 協力條約」 (a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을 체결함과 아울러 상세한 內容의 「ASEAN 合意宣言」 (the Declaration of ASEAN Concord) 을 채택했다.

나. 機構의 目的

1976 年 「발리」 ASEAN 頂上會談에서 체결된 ASEAN 「親善 및 協力條約」에 의하면 ASEAN 의 目的을 「 ASEAN 의 힘과 團結力, 그리고 相互 緊密한 關係를 維持하는데 寄与할 全員國間的 平和와 永久한 親善 및 協力を 圖謀하는것 」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同 頂上會談에서 채택된 "ASEAN 合意宣言"은 아래와 같은 部門에서의 "行動計劃" (Program of action)을 "ASEAN · 協力の 틀"로 밝히고 있다.

(1) 政治部門

- 가) 必要에 따라 會員國들은 頂上會談을 開催함.
- 나) 親善 및 協力條約에 調認함.
- 다) 가능한 最短期日內에 平和的 方法에 의해서 東南亞內部的 紛爭을 解決함.
- 라) 域內의 可能的한 모든 地域을 平和 · 自由 및 中立의 地域 (the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指定하고, 이를 遵守하기 위한 初段階措施를 즉각 考慮함.
- 마) 政治協力 強化를 위한 ASEAN機構를 改善시킴.
- 바) ASEAN亡命者 本國送還條約 (an ASEAN Extradition Treaty)의 締結을 비롯한 司法部門의 協力 增進方案 研究
- 사) 各會員國間의 見解의 調和를 위해 努力하고 主張을 統合시키며, 可能하고 또한 바람직할 경우 共同措置를 取함으로써 政治的 團結을 強化시킴.

(2) 經濟的 部門

- 가) 基本商品 (Basic Commodities) 특히 食糧 및 에너지에 관한 協力
- 나) 産業協力

태) 貿易協力

래) 國際商品 問題 (International Commodity Problems)

및 其他 世界經濟問題에 대한 共同努力

(3) 社会部門

가) 低所得層 및 農村人口의 福祉를 改善하기 위하여 公正한 報酬를 받는 生産的인 諸般 機會를 擴張시킴으로써 社会 開發部門의 協力を 期함.

나) ASEAN 共同社会 (ASEAN Communities)의 各界各層 特히 女性과 青年들을 開發努力에 積極參與시키도록 支援함.

태) 人口增加問題의 解決을 위한 既存 協力の 強化 및 擴大

래) 催眠劑濫用 및 諸般 藥品의 不正去來를 防止 및 根絶하기 위한 關聯 國際機關과의 協力は 물론 會員國간의 協力を 強化함.

(4) 文化 및 弘報部門

가) 會員國內의 諸學校 및 기타 教育機關의 教科過程의 一部로 ASEAN에 대한 紹介를 挿入함.

나) ASEAN의 地域的 主体성과 親睦意識을 增進시키는데에 積極參與할 수 있도록 學者·作家·芸術人 및 言論人들을 支援함.

태) 會員國內의 諸般 政府機關간의 緊密한 共同努力을 通하여 東南亞研究를 振作시킴.

(5) 安保部門

安保問題에 關한 限 ASEAN會員國들은 ASEAN의 틀 밖에서 (On a non-ASEAN basis) 會員國間의 協力을 繼續함.

(6) ASEAN機構 改善部門

가) ASEAN事務局 設立에 關한 協約에 調認함.

나) 組織의 效率性을 增進시킬 目的으로 ASEAN組織 및 機構에 대하여 定期的 監査를 實施함.

다. ASEAN의 組織構成

地域協力機構로서 ASEAN은 組織은 1976年 「발리」頂上會談以後 全面 改編되었다. ASEAN頂上會議는 定期的으로 開催되지 않지만, ASEAN의 最高 決定機關이다. 尙今까지 開催된 ASEAN의 閣僚及 會議(Ministerial Meetings)는 아래와 같다.

經濟閣僚會議 (1975年 最初로 開催됨)

教育閣僚會議 (1977년에만 開催되었음)

外相會議 (1977년에 最初로 開催되었음)

保健閣僚會議 (1971년에만 開催되었음)

公報閣僚會議 (1977년에만 開催되었음)

勞動閣僚會議 (1975년에 最初로 開催되었음)

社会福祉關係 閣僚會議 (1977년에만 開催되었음)

원래는 諸 「閣僚會議」는 頂上會議에 直接 報告하게 되어 있지만, 實際로는 「外務閣僚會議」를 除外한 모든 「閣僚會議」는 諸般

活動報告書를 「常任委員會」(the Standing Committee)에 提出한다. 「常任委員會」는 諸 「閣僚會議」中 唯一하게 各會員國을 國際協約에 參與시키는 權限을 갖는 「年次的 外相會議」開催를 위하여 諸般 事項을 準備한다. 이와 아울러 各 「閣僚級 會議」를 準備하기 위하여 次官級으로 構成된 「高級官吏會議」(Meetings of Senior Officials)가 設置되어 있다. 「外相會議」를 위한 「高級官吏會議」는 「常任委員會」로부터 報告를 받는다. 그런데 上記 「高級官吏會議」는 원래 1971年 「쿠알라 룸플」(Kuala Lumpur)에서 開催된 「ASEAN 外相會議」의 合意에 따라 “平和・自由・中立의 地域” (a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에 로의 諸般 段階를 開發하기 위하여 1972年에 設置되었던 것이다.

1976年에 設置된 「ASEAN 事務局」은 一名의 「事務總長」이 管轄하며 3局(經濟, 科學 및 技術 및 社會・文化關係)과 3部(交易 및 經濟關係, 行政 및 弘報)로 되어 있다. 「事務總長」 및 3局局長은 알파벳 順位에 따라 會員國에서 選任된다. 「事務總長」 또는 事務局 代表는 諸般 「閣僚會議」 「委員會」에 參席하고 특히 事務局은 「常任委員會」에 대하여 直接的인 責任을 갖는다. 「事務局」은 各種 「委員會」間의 公式的인 「컴뮤니케이션・체널」을 提供함과 아울러 自体計劃 또는 要請에 따라 各種 問題에 대한 「워킹・페퍼」(Working Paper)를 作成한다. 또한 事務局은 各種 交涉을 担当하며 “UND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및 日本에 의해서 設置된 "文化基金" (the Cultural Fund)에 의해서 支援되는 各種 地域프로젝트에 대해서 資金を 配分한다.

各 ASEAN會員국은 「国別 ASEAN調整委員會」(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를 갖고 있으며 各 會員国別로 實施되는 ASEAN 프로젝트에 대한 行政支援을 한다. 「常任委員會」는 「아세안基金」(ASEAN Fund) 및 事務局豫算을 監督하기 위한 「豫算委員會」(a Budget Committee)를 設置하였으며, 同委員會는 過去 「財政委員會」(the Committee on Finance)를 代置한 것이다.

「經濟關係會議」산하 各種 委員會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財政 및 金融委員會

(2) 貿易 및 觀光委員會

가) 觀光에 관한 小委員會

나) 貿易特惠交渉구름

데) 協力에 관한 ASEAN구름

(3) 産業, 鈹物 및 에너지關係委員會

가) 産業補完성에 관한 實務者구름

나) 個別的 ASEAN産業프로젝트에 관한 專門家구름

(4) 食糧 農業 및 林業關係委員會

가) 食糧取扱 小委員會(Subcommittee on Food Handling)

(5) 交通 및 通信委員會

가) 民間航空 및 關聯서비스에 관한 小委員會

㉔ 海上運送 및 港口에 관한 小委員會

㉕ 郵便 및 電信에 관한 小委員會

위에서 言及한 「經濟關係會議」 산하의 諸委員會 外에 1971년에 開催된 「쿠왈라-룸플」外相會議에서는 下記와 같은 3個의 委員會를 認可했지만 아직까지 그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6) 科學 및 技術關係委員會

㉔ 단백질에 관한 小委員會

㉕ 氣象學에 관한 小委員會

㉖ 標準化에 관한 小委員會

㉗ 環境에 관한 小委員會

(7) 文化 및 公報委員會

(8) 社會開發委員會

위에 言及한 各種 委員會는 特定프로젝트에 관한 細部事項을 開發하기 위한 特別구름(Ad Hoc Groups)을 設置할 수 있다. 各 小委員會는 現在 進行되고 있는 特殊한 프로젝트를 調整하는 役割을 担当한다.

ASEAN의 業務가 擴張됨에 따라 臨時的인 各種 「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s)의 數가 增加되었으며 그 現況은 아래와 같다.

「UN研究에 관한 ASEAN諮問委員會」(1971년에 設置, 1972년에 終了됨)

「인도차이나 諸國의 再建 및 復舊를 위한 ASEAN調整委員會

(1973 年에 設置되었으나 現在 機能을 하지 않음)

「GATT-MTN에 관한 高級貿易官吏委員會」(1973 年에 設置되었음).

「ASEAN 國 諸 中央銀行 및 金融當局에 관한 特別委員會」(1973 年에 設置되었음).

「ASEAN에 관한 特別 調整委員會(SCCAN) - 1972 年 歐洲經濟 共同體(EEC)와의 “雙務間 對話”(dialog)를 增進시키기 위하여 1972 年에 設置되었음.

ASEAN은 非ASEAN 國 및 組織과 公式的인 連絡關係를 維持하고 있는데, 이를 위하여 第一次的으로 “雙務間 對話”(dialog)의 形式으로 開陣되며 이것이 漸進的으로 “公式討論會議”(forum)의 形式으로 發展된다.

「ASEAN-오스트랄리아 Forum」(1973 年 “ dialog ”를 始作, 1977 年 “ forum ”이 되었음)

「ASEAN-캐나다 Dialog」(1975 年 始作되었음)

「ASEAN-EEC Dialog」(1972 年에 開始되었고, 1975 年 共同研究 究구름이 設置되었음).

「ASEAN-日本 Forum」(1973 年에 開始된 合成고무에 관한 ASEAN-日本 Forum에서 發展하여 1977 年에 始作됨)

「ASEAN-뉴질랜드 Dialog」(1975 年에 始作됨)

「ASEAN-UNDP / ESCAP Dialog」(1976 年에 始作됨)

「ASEAN-美國 Dialog」(1977 年에 始作됨)

各 ASEAN 會員國들은 各種 "Dialog" 또는 "Forum" 을 調整 責任을 갖는다.

即 「오스트랄리아」 에 대하여는 「말레이시아」, 「카나다」 및 美國에 대하여는 「필리핀」, 日本 및 "EEC" 에 대하여는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에 대하여는 「싱가포르」, 그리고 "UNDP" 및 "ESCAP" 에 대하여는 「타이랜드」가 各各 調整 責任을 갖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또한 「西部 아시아」와의 ASEAN 關係業務 調整 責任을 갖고 있다. 「네델란드」와 韓國은 ASEAN과 "Dialog" 를 設置하려고 試圖했지만 아직도 實現되지 않고 있다.

"Dialog", "Forum" 또는 其他 業務가 存続하는 第3國에 ASEAN 委員會가 設置되며 그 現況은 다음과 같다.

「ASEAN - 부르넬 調整委員會 (ABC)」

「ASEAN - 칸베라委員會」

「ASEAN - 제네바委員會」 (AGC)

(GATT, ILO 및 UNCTAD 등과 連絡關係 維持)

「ASEAN - 옷타와委員會」

「ASEAN - 東京委員會」

「ASEAN - 워싱턴委員會」

「ASEAN - 웰링턴委員會」

1973年 11月 23日 「방콕」에서 開催된 「常任委員會」에서 이들 第3國에 駐在해 있는 諸 ASEAN委員會에 대한 指針을 決定한 바 있으며, 이에 의하면 이들 委員會는 第3國 駐在 ASEAN大使

들 및 外交官들로 構成된다.

이밖에 ASEAN 「레벨」을 붙인 非政府間 機構들이 있지만 이들은 ASEAN의 公式 組織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라. ASEAN機構의 財政狀況

各 ASEAN 委員國은 100萬弗씩의 「ASEAN 基金」을 外務省 豫算으로 確保하고 있다. 「ASEAN 基金」은 原則적으로 非人事項目에 使用토록 되어있다.

1976年 「자카르타」에 ASEAN 事務所 設立時 「ASEAN 事務所 基金」이 新設되었고 第2次年度分은 28萬5千弗로, 各 會員國이 同等한 負擔原則에 의거 負擔키로 되어 있다. 「常任委員會」에서 「ASEAN 基金」과 「事務所 基金」을 管理한다.

ASEAN은 諸般 外部로부터 流入되는 資金支援에 대하여 「個別 會員國에 대한 偏頗的 支援禁止」 「地域적인 性格을 띤 프로젝트 支援」 「條件附 支援禁止」 「ASEAN 開發能力補充」 「全 會員國에 대한 惠沢」 「技術移轉 및 關聯 技術者의 參與」 등 諸原則을 樹立, 適用하고 있다. 現在까지 「오스트랄리아」, 「카나다」, 日本, 「뉴질랜드」 및 「UNDP」 등이 ASEAN에 資金支援을 하고 있다.

「오스트랄리아」는 「食糧物 取扱」 「단백질 研究」, 「教育 및 貿易協力研究」 및 「ASEAN 消費者 保護機關設立」 등 諸般 프로젝트」를 支援할 目的으로 同資金支援을 倍로 增援하기로 約定하였다.

「카나다」는 「地域民間航空」 및 「地域内 衛星通信 妥当性研究」와 關聯, 專門家を 派遣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漁業, 林業, 港口開發 및 交易部門에 專門家派遣을 提議하였다.

日本은 ASEAN에 長期 低利「베이스」(Concessional terms)로 總 10億弗規模의 援助를 約束하였다. 日本은 自國의 專門家들이 技術 및 經濟的 側面에서 妥当하다 認定하는 ASEAN産業計劃을 支援할 것을 提議한 바 있으며, 同支援의 一環으로 「쿠알라룸푸르」郊外에 「타야開發研究所」設置로 2.5百萬弗의 支援을 約定하였다. 日本은 1978年에 「文化基金」으로 50億「엔」(21.25弗)의 支援을 約定, 「ASEAN事務所」는 1979年부터 5個年間 每年 10億「엔」씩 日本으로부터 支援받게 되며, 同 基金의 利子로 學生交換, 東南亞研究, 出版, 「세미나」 「심포지아」 및 「워크·샵」 등을 運營토록 되어 있다. 1978年에 日本은 또한 「마라카」海峽(the Straits of Malacca)에서의 「오일」漏出에 對備, 4億「엔」(1.7百萬弗)에 달하는 「回轉基金」(a Revolving fund)를 設置하기로 約定하였다.

「뉴질랜드」는 이미 ASEAN原本의 實需要者에 關한 調査를 위하여 專門家を 派遣하였고, 앞으로 牧畜業, 林業 및 交易部門등에 技術援助를 約束하고 있다.

1972年에 完成된 ASEAN經濟協力에 關한 UN研究「팀」의 結果報告에 依拠, UNDP는 1977年에 아래와 같은 ASEAN關聯 프로젝트를 財政支援키로 約定하였다.

(1) ASEAN貿易多邊化를 위한 交渉구룹(the ASEAN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Group)에 대한 支援

(2) " ASEAN 國間의 補完的 産業協力을 위한 技術的 家族群의 選擇 "이라는 名目の UNIDO 研究프로젝트支援

(3) ILO 에 의해 1977年 中期에 「자칼타」에서 開催된 「雇傭 및 失業에 관한 資料蒐集의 概念 및 方法」에 관한 세미나開催에 따르는 資金支援

(4) FAO는 現在 ASEAN 諸國에 있어서의 食糧物 및 其他 戰略的 農產品에 대한 需要 및 供給에 관한 分析과 關聯, UNDP의 財政支援을 받는 研究「팀」을 派遣하기 위하여 ASEAN과 交渉中에 있음.

(5) 그밖에 UNDP는 「世界氣象機構」(the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에 의한 ASEAN地域에 관한 氣象圖 및 氣象統計 作成을 위한 專門家派遣에 따르는 財政支援을 約定한 바 있다.

마. ASEAN 프로젝트 : 実績 및 運營現況

ASEAN이 實施한 프로젝트數는 1968~1969年까지의 10個에서 1970년에 22個, 1971년에 48個, 1972년에 85個, 1973年 120個, 1974년에 100個로 增大되었으며, 現在 ASEAN이 推進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數에 있어서 훨씬 增大되고 있지만, 公式 또는 非公式的인 集計가 發表되지 않고 있다.

다음에 各部門別로 ASEAN이 完成했거나 推進中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言及하고자 한다.

(1) 金融關係協力프로젝트

ASEAN 中央銀行總裁로 構成된 特別委員會는 會員국의 國際的 代金決裁上 短期的 問題가 발생시 이를 도울 수 있는 美貨 1億弗의 信用金庫(the ASEAN Swap Arrangement)를 세우는데 合意하였다. 同 措置로 ASEAN 各會員国은 3個月을 超過하지 않는 範圍에서 40百萬까지 自国貨幣를 美貨로 交換할 수 있게되며, 各 會員国 中央銀行이 「알파벳」順으로 同 信用金庫業務를 代行하며, 「인도네시아」가 첫번째 代行業務를 맡게 되었다. 그 밖에도 ASEAN 中央銀行總裁 特別委員會는 原則上 ASEAN 清算計定 (ASEAN Clearing Arrangement)에 合意했지만 域内 貿易自由化 및 拡大計劃이 진척될때까지 延期하기로 決議하였다.

(2) 觀光協力프로젝트

ASEAN 觀光小委員會는 1971년에 " ASEAN 觀光 10年 "을 設定, ASEAN 國家間 여행장려를 위한 航空旅費引下措置등을 취한 바 있다. ASEAN 會員国 國民은 「비자」없이 ASEAN 旅券만으로 一週日間 他 ASEAN 會員国을 旅行할 수 있다. ASEAN 觀光案内書 및 其他 觀光振興資料가 出版되었고, 1971년에는 ASEAN 觀光展望에 관한 研究가 實施된 바 있다. 「싱가포르」大學은 ASEAN 諸国 訓練生을 위하여 호텔經營關係 訓練을 實施해 오고 있으며,

특히 1976년에는 美國人 호텔經營專門家들이 5 個國 ASEAN 會員國 首都에서 5 日間씩의 세미나를 開催한 바 있다. 觀光프로젝트로 現在 進行되고 있는 것은 稅關에서의 諸般 措置 및 觀光施設의 標準化와 ASEAN 域內 觀光客에 關한 調査 및 抱括的인 觀光統計 資料의 蒐集등이다.

(3) 交易關係 프로젝트

貿易特惠交渉團體 (the Trade Preferences Negotiating Group, TPNG)의 主業務는 ASEAN을 自由貿易地域, 關稅同盟 또는 共同市場의 方向으로 이끄는 것이다. 1975년에 設立된 同 團體의 主業績은 ASEAN 國間 交易 特惠措置에 關한 協約 (the Agreement on ASEAN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PTA)이며, 同 協約은 域內 國家間 關稅引下, 購買特惠 및 戰略商品의 留保條項등을 規定하고 있다. 現只까지 71 個品目에 對한 關稅引下 協約이 이루어 졌다. TPNG는 輸入代替의 潛在力이 높은 500 個의 品目を 關稅引下 對象品目으로 交渉할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TPNG의 交渉에 對한 最終 認可는 交易 및 觀光委員會가 하며 ASEAN 産業프로젝트 및 産業補完措置에 의해 生産된 品目은 自動的으로 위에서 言及한 諸般 交易特惠措置의 規制를 받게 되어 있다. TPNG의 地域外 交渉成果로 EEC에 의한 ASEAN 諸國으로부터 輸出되는 蘭草에 對한 關稅撤廢와 日本에 의한 ASEAN으로부터 輸出되는 動物性 脂肪, 마아가린 「팜오일」 및 紙類에 對한 「쿼타」

制를 撤廢한 것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TPNG는 1978년에 極東運賃同盟 (the Far Eastern Freight Conference, FEFC)의 10% 運賃引上을 4%로 引下시키는 交渉에 成功하였다.

(4) 産業關係協力 프로젝트

「産業 鉉物資源 및 에너지關係委員會」는 2個의 活潑한 小委員會를 갖고 있으며 이들 小委員會 即 「産業補完에 關한 実務者구름」과 「個別 ASEAN産業프로젝트에 關한 專門家구름」은 會員国間의 經濟計劃을 地域化의 초점에 맞추어 推進하도록 努力하고 있다. 「産業補完에 關한 実務者구름」은 會員国間의 競争을 피하고 産業間 補完性을 增進시키기 위하여 私企業部門의 企業체長들을 한 자리에 招請, 補完的 産業部門을 開拓토록 권장하는 方法을 講究하고 있다. ASEAN은 會員国家間 産業補完이 可能한 産業部門으로 自動車産業, 에너지, 페파·펄프, 造船, 鋼鉄 電氣通信等を 竝고 있으며 UNIDO의 財政支援을 받아 이들 産業에 對한 妥當性調査를 實施하고 있다. 「個別 ASEAN産業프로젝트에 對한 專門家구름」은 ASEAN 各國에 新規 産業建設을 目標로 하고 있으며 各 會員国別 新規 産業프로젝트 現況은 다음과 같다.

- ㉠ 인도네시아-尿素肥料工場 (日本의 財政支援)
- ㉡ 말레이시아-尿素肥料工場 (妥當性調査進行中)
- ㉢ 싱가포르-200~500馬力 規模의 디젤엔진 (妥當性調査進行中)
- ㉣ 필리핀-磷酸肥料工場 (妥當性調査進行中)

(비) 타이랜트-岩塩 및 소다회工場 (妥當性調査進行中)

이밖에도 電氣에 의한 朱錫鍍金, 魚業, 金屬機械工具 및 테레비受像機等 部門에 대하여 事前 妥當性調査 (Pre-feasibility Study) 를 進行中에 있다.

이상에 言及한 프로젝트外에도 ASEAN은 「食糧 및 農業協力部門」 「輸送 및 通信協力部門」 「教育 및 文化協力部門」 및 其他 部門協力에 관한 多様な 프로젝트를 實施中에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多方面에 걸친 ASEAN協力は 非政治的 部門 即 經濟・技術的인 事項 (techno-economic matters)에 限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新聞 또는 其他 非公式的인 「소스」에 ASEAN 國家間에 軍事協力 (military Cooperation)에 관하여 繼續 言及되고 있지만 現 只까지 ASEAN이 公式的으로 認定한 軍事的 프로젝트는 없으며 단지 「인도네시아」가 補完産業部門으로 武器産業을 提議한 바 있다. 現在 ASEAN 國家中 「말레이시아-타이랜트」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및 「필리핀-인도네시아」가 雙務的 「베이스」로 國境條約을 締結, 共同 軍事訓練에 參與하고 있지만 이들 活動은 ASEAN의 틀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은 勿論이다.

바. ASEAN에 대한 評價

以上에서 우리는 地域協力機構로서 ASEAN을 評價하기 위한 基礎資料 (Basic information)로서 첫째, ASEAN의 設立 沿革, 둘째, ASEAN의 目的, 셋째, ASEAN의 組織構成, 넷째, ASEAN의

財政狀況, 다섯째, ASEAN에 의해서推進되고 있거나 혹은完成된
諸般 프로젝트등 여러가지 側面에서 地域協力機構로서 ASEAN에
關해서 概括적으로 살펴 보았다.

以上の ASEAN에 關한 現實 運營面에서의 評價基準으로 볼때
ASEAN은 1976年 「발리」頂上會議 및 1977年 「쿠알라 룸플」
頂上會議에서의 政治的 協力宣言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經濟的 및
文化等 非政治的 部門의 協력이 ASEAN協力の 主軸을 이루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最近의 ASEAN이 處하고 있는 國際環境, 即 美·日·中蘇등 周邊
強大國과의 關係, 東南亞地域内の 非共產 ASEAN 5個國과 越南戰의
終了와 同時에 登場한 「인도차이나」의 3個共產國과의 對立 및
中·蘇紛爭을 背景으로 한 이들 「인도차이나」共產國家間的 紛爭등
急激한 情勢變化推移는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 地域協力
機構로서의 ASEAN에 대한 다음과 같은 暫定的 評價를 試圖함으
로서 本章을 끝내려고 한다.

(1) 越南戰의 激化, 中共의 周邊 隣邦國에 대한 文化革命(Cult-
ural revolution) 輸出 및 美國의 스에즈運河以東으로부터의
撤収聲明등등 ASEAN諸國의 安保環境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는 國
際環境속에서 1967年 出帆한 ASEAN은 第一期(1967~1975年)
까지는 ASEAN諸國 指導者들의 域內 平和 및 安保에 대한 切實
한 必要性에 不拘하고 中·蘇의 反撥을 意識하여 主로 經濟·文化
協力에 置重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은 ASEAN諸國의 經濟的 또는

文化的 非政治分野에서의 協力置重은 中·蘇등 北方強大國의 反撥意識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當時 ASEAN 諸國 指導者들의 ASEAN 의 役割에 대한 現實的 評價에서 起因되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첫째, ASEAN 諸國은 「타이랜드」를 除外하고 各己 다른 西歐植民主義統治를 받았다는것 以外는 相互 異質的인 社會·經濟體制, 人種, 宗教등 諸般分野에서 類似性 (Similarities) 을 欠하고 있음은 勿論, 植民主義의 結果로 빚어진 國境線紛爭, 人種問題, 貧富差의 격심으로 인한 內部分裂등등 隣邦國間의 協力の 經驗보다는 葛藤關係의 經驗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安保 및 其他 政治的 協力보다는 보다 容易한 文化·經濟的 協力の 길을 扞할 수 밖에 없었다.

둘째, 또한 當時의 ASEAN 諸國의 政治指導者들은 自國에 對한 安保威脅의 性格이 中·蘇 特히 中共으로부터의 正面攻擊 (frontal attack) 에서 招來되는 것이 아니라 自國內의 脆弱地區의 叛徒들을 支援, 政府顛覆을 企圖하는 소위 "人民戰爭" (Peoples War Approach) 支援方式에 基因함을 勸案, 各國의 經濟發展을 통한 貧困의 除去가 中共의 "人民戰爭" 支援方法을 통한 各國의 安保威脅에 對備하는 即 "安保 및 平和威脅에 對한 經濟的 接近法" 이 現實的이고 合理的이라는 判斷을 하였다. 따라서 이들 ASEAN 諸國 指導者들은 各國의 經濟發展이 自國民의 福祉뿐 아니라 自國의 安保威脅에 對處하는 最上의 方策이라는 共同의 關心을 갖게 되었다. 이와 같은 共同關心下에 ASEAN 은 ASEAN 各國의 經濟發展을 促進시키는데에 重點을 둔 經濟·文化協力中心의 地域協力機構로

서 出發하였다. 이와같이 ASEAN諸国 指導者들은 ASEAN諸国間의 經濟協力을 통해서 間接的으로 地域의 平和 및 安保의 目的까지 達成할 수 있다는 間接적이고 迂廻적인 方法을 채택하였고 1967年 ASEAN創設 當時 ASEAN国家間에 安保協力は 물론 政治的 協力を 배제한 純粹한 文化·經濟協力에 置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初期 約 8年間은 會員国家間의 利害對立과 東南亞의 錯綜하는 政治狀況 및 組織上的 不備, 未發達로 인해 經濟協力分野에 있어서는 具體적인 進展을 이룩하지 못했다.

(2) 1970年代에 들어서 東南亞로부터 美國의 後退徵兆가 보이기 始作하고 나아가서 1972年 美國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으로 비롯되는 美·中共의 和解, 1975年 「베트남」終戰과 더불어 「인도차이나」의 3個국이 共產化되는등 東南亞의 情勢가 激動함에 따라 ASEAN 5個국은 前述한 文化·經濟的 協力에 追加하여 ASEAN 5個국의 安保를 念頭に 둔 政治的 協力を 強化하였다. 이와같은 政治協力的 첫번째 試圖가 1971年 11月 「쿠알라룸플」에서 開催된 ASEAN外相會議에서 採択한 「東南亞 中立地帶構想(쿠알라룸플宣言)」으로 ASEAN圈을 「平和·自由·中立地帶」로 設定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같은 ASEAN地域의 中立化方案은 ASEAN国家間에 外部勢力의 自制를 要求하는 「中立化」와 外部勢力參與속의 相互牽制를 求하는 勢力均衡사이의 矛盾된 見解가 露呈되어 있어 아직까지 ASEAN의 統一된 意見を 提示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1975年 「베트남」의 赤化와 越盟을 中心으로 하는 6千萬 社会主义圈의 出現은 「인도차이나」半島에 있어서 左右 兩派의 勢力 均衡과 現狀維持를 前題로 創設된 ASEAN諸國의 安保構想에 대하여 重大한 試練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이와같은 激動하는 東南亞情勢에 對備하기 위하여 ASEAN諸國은 「인도차이나」諸國과의 平和共存을 表明했고 그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타이랜드」 등은 中共을 公式承認하였으며, 「필리핀」과 「타이랜드」는 SEATO 脫退를 宣言하였다.

이러한 背景에서 ASEAN諸國은 1976年 2月 創設 8年만에 「인도네시아」의 「발리」島에서 ASEAN 第1回頂上會議을 開催함으로써 ASEAN은 跳躍의 第二期(1976~現在까지)를 맞게 되었다. 특히 第1次 ASEAN頂上會議에서는 ASEAN의 「經濟·社會·文化·政治面에서의 協力強化」와 아울러 1971年 「쿠알라룸푸르」宣言에 이어 再次 「地域内の 平和, 自由, 中立化의 實現促進」을 宣言하고 이를 實現하는 方法으로 첫째 地域的 抵抗力을 強化하여 外部侵略을 沮止한다. 둘째 地域經濟發展을 위하여 豐富한 資源을 活用한다. 셋째 域内の 紛爭을 平和的 手段으로 解決한다. 넷째 民族自決과 主權平等의 原則에 따라 域外の 紛爭에는 介入하지 않는다. 등에 合意하여 政治協力體制로서 ASEAN의 "틀" (framework)을 設定하였다.

ASEAN 第一頂上會議의 特性은 只今까지의 文化·經濟協力에 重點을 두었던 ASEAN을 政治協力體制로서 發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데 있다고 하겠다. 특히 第一次 ASEAN 頂上會議은 이와같은 政治協力の 기틀을 마련했을뿐 아니라 經濟協力面에서도 앞에서 자세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米穀 및 石油의 緊急融通制度, 共同프로젝트, 特惠貿易制度 등 經濟協力の 行動計劃을 마련했다. ASEAN은 이와같은 行動計劃을 具体化시키기 위하여 數次例에 걸친 「經濟關係會議」 및 「外相會議」를 開催하였고 1977年 6월에 開催된 第4回 經濟關係會議에서는 特惠關稅對象品目으로 77個品目を 選定함으로써 ASEAN 經濟協力史上 새로운 里程碑를 마련한 것이었다.

1977年 8月 4~5日 兩日間 「쿠알라룸플」에서 開催된 第二次 ASEAN 頂上會議은 ASEAN 創設 10周年을 記念하는 歷史的 會談이었으며 곧 이어서 開催된 日本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와의 擴大頂上會議로 發展되어 여러가지 劃期的이고 鼓舞的인 成果를 거두었다. 특히 經濟協力分野에서 첫째, 1次共同프로젝트의 早期着工 促求, 둘째, 2次共同프로젝트로서 7個業種選定, 셋째, SWAP 協定 締結, 넷째, 域內貿易協定을 1978年 1月 1日부터 施行등 具體的인 成果를 이룩했다. 政治協力面에 있어서도 「필리핀」의 마르코스 大統領은 開幕演說을 통해 「사바」(Sabah) 地域 領有權問題에 대해 劇的인 拋棄宣言을 했고 「싱가포르」는 東티모르(Timor)의 「인도네시아」 歸屬을 承認함으로써 이제까지의 域內的 潛在的인 紛爭의 原因을 除去, ASEAN 結束을 다짐하는 契機를 마련했다. 특히 「쿠알라룸플」 第二次 ASEAN 頂上會議을 契機로 日本, 「오스트라리아」 「뉴질랜드」 및 美國과의 域外經濟協力の 길을 열게된 것은 ASEAN이 經濟共同体로서의 기반을 더욱 確固히 했다는 점에서 큰 成緊를 거두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3) 1976年 「발리」 第一次 ASEAN 頂上會議 및 1977年 「쿠알

라룸플」 第二次 ASEAN 頂上會議에서 從前的 非政治的 部門의 協力 即 文化·經濟·協力體制로서의 ASEAN 을 政治協力體制로까지 發展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음은 前述하였다. 그러나 아직껏 政治協力面에서 ASEAN 地域을 「平和, 自由, 中立地帶」로 設定한다는 것 以外에 ASEAN이 地域協力機構로서 共同으로 ASEAN 地域外 國家들과의 關係, 即 「인도차이나」 共產 3 個國과의 關係 및 美·日·中·蘇 등 周辺強大國과의 關係를 規定한 것은 없다. 이 點에 있어서 ASEAN 個別會員國間의 外交政策面에서 多少間의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지금까지 ASEAN 은 地域協力機構로서 日本 및 美國과 經濟協力を 推進中에 있으며 이밖에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카나다」 및 「E C」 諸國과의 經濟協력이 ASEAN 地域外 協力の 主軸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ASEAN 에 對한 評價는 政治協力體制로서 보다는 經濟協力體制로서 括目할 成果는 이루고 있으며 政治協力體制로서의 發展可能性을 갖고 있다는 暫定的인 結論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經濟協力體制로서의 ASEAN 의 發展이 現在 東南亞 地域의 統制下에 있지 않는 外部 強大國間의 政治 및 安保關係의 推移에 크게 影響을 받는다는 點에서 이들 強大國의 ASEAN 諸國 및 東南亞地域에 對한 政治·經濟·安保等 諸次元에서의 利害關係를 分析하는 것이 ASEAN 의 將來를 가늠할 수 있는 主要 變數들임은 勿論이다. 따라서 이들 強大國—美國, 日本, 蘇聯 및 中共—의 ASEAN 諸國에 對한 關係를 分析하는 것이 다음 章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作業이다.

3. ASEAN 과 周邊勢力(美·蘇·中·日)과의 關係

가. 美國과 ASEAN 과의 關係

(1) 美國의 ASEAN 에 대한 戰略 및 安保面에서의 利害關係

美國의 東南亞 特히 ASEAN 諸國에 대한 戰略 및 安保面에서의 關係는 1950年代 및 1960年代初期까지의 美國外交政策의 根幹을 이루었던 對蘇 및 對中共 封鎖政策(containment policy)과 1960年代 및 1970年初期까지의 中共의 間接侵略(indirect aggression)에 對應하는 도미노理論의 視角에서 보는 것과는 樣相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이地域에 대한 戰略 및 安保面에서의 重要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特히 戰略的인 面에서 美國이 東南亞地域에 對해 關心을 갖는 理由는,

첫째, 東南亞의 海洋國家들이 太平洋쪽에서의 假想攻勢(hypothetical attack)에 대한 前近防圍線의 一部를 形成한다는 點.

둘째, 東南亞(海洋國家들)地域이 印度洋과 南支那海 및 太平洋을 連結하는 戰略的 水路(Strategic waterways)에 位置해 있다는 事實,

셋째, 이地域이 에너지를 비롯한 主要 原資材를 保有하고 있다는 點等이다.

特히 ASEAN 地域은 日本, 「오스트랄리아」 및 「뉴질랜드」를 連結하는 島嶼地域의 中心部에 位置하고 있고 美國은 同島嶼地域의

「체인」을 美國의 安保 特히 太平洋上의 諸 統治地域과 西部沿岸의 安保에 必須的인 前近防圉線으로 考慮하고 있다. 特히 美國은 이와같은 前近防圉計劃과 關聯, ASEAN 地域을 “理念的 緩衝地域”(an ideological buffer)으로 考慮하고 있으며 새로히 浮上하는 東南亞勢均衡에 있어서 「인도차이나」共産國家에 對한 對應勢力으로서 評價하고 있음은 勿論, 東南地域에의 中·蘇勢力 팽창에 對한 安全瓣으로 評價하고 있다.

美國의 戰略的 關心과 關聯,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마라카」海峽(Malacca Straits)에 位置해 있기때문에 美國의 戰略的 關心을 끌고 있다.

以上과 같은 美國의 東南亞地域에 對한 戰略的 및 安保面에서의 利害關係로 現在 「타일랜드」에서는 그 國家 國內事情으로 因하여 美軍을 撤収시켰지만 「필리핀」에 두개의 戰略的인 美軍事基地를 두고 있어 日本, 「괌」, 「티니안」 및 「오스트랄리아」等地에 있는 美軍事施設과 함께 「베트남」戰爭 終了後 現속에 이르기까지 美國의 前近防圉線計劃의 一環으로 使用하고 있다.

(2) ASEAN과 美國의 經濟的 關係

위에서 言及한 美國의 東南亞 特히 ASEAN 諸國에 對한 戰略的 및 安保的 利害關係는 學者에 따라 論難의 對象이 되고 있지만 美國과 ASEAN 國間의 漸增하는 經濟的 紐帶 特히 ASEAN 諸國의 地域協力을 통한 經濟發展에 美國이 至大한 關心을 갖고

있음은 論難의 餘地가 없는것 같다.

美国은 ASEAN 諸국이 中共, 「인도차이나」의 諸국 및 蘇聯과의 双務的 關係를 發展시켜 나가는데 對해서 反對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美国이 ASEAN 諸국에 對해 期待하고 있는 것은 ASEAN 國 内部에 叛亂勢力이 橫行하거나 中·蘇등 強大國의 勢力이 浸透하기 前에 域内國家間의 急速한 經濟發展 및 政治的 安定이 이룩되는 일이다.

또한 美国은 이들 ASEAN 諸국과의 經濟協力을 企圖하는데 있어서 이들 ASEAN 諸국이 主張하고 있는 「新國際經濟秩序」의 “틀”에서 가 아니라 「브레튼·우두」體制에 基盤을 둔 先進國中心의 經濟 및 貿易協力體制範圍内에서 이들 ASEAN 諸국과의 經濟協力을 願하고 있다.

美国務省 經濟担当 次官인 「리차드·쿠퍼」(Richard N. Cooper) 氏는 ASEAN이 美国에 重要한 理由에 對하여 “ASEAN은 開發途上國 및 産業先進國에 對하여 共히 各種 重要한 商品의 供給地일 뿐 아니라 例外的인 成長의 潛在力을 갖는 地域이다.”라고 言及함으로써 ASEAN의 經濟的 重要性을 是認한 바 있다.

美国과 ASEAN 間에 現在 進行되고 있는 貿易對話(trade dialogue)도 美国이 ASEAN을 地域協力機構로 公式的으로 認定한 結果이며, 雙方間의 經濟的 重要性을 誇示하는 것이기도 하다.

'78年 8月2日부터 4일까지 「워싱턴」에서 開催된 美国과 ASEAN 間의 第2次 閣僚會議에서도 美国과 ASEAN 間의 經濟·通商

問題를 中心으로 論議, 첫째, ASEAN諸國의 輸出所得安定을 爲해 共同基金을 마련할 것, 둘째, 美國으로부터의 民間投資를 增大할 것 셋째, ASEAN諸計劃에 對한 美國의 協力을 檢討할 것, 넷째, 文化·教育面에서의 協力을 擴大할 것등을 合意하였다.

美國과 ASEAN諸國間의 交易量은 年間 平均 20億 弗에 達하고, 1976年 한 해 동안 美國은 ASEAN地域으로부터 全原油輸入量의 1/10 과 고무, 주석, 「코코아」, 「보키사이트」 및 其他 主要 原資材의 相當量을 輸入했다. 反面 ASEAN 5個國은 美國으로부터 37億 弗相當의 美國商品을 輸入했으며, 美國은 日本과 함께 ASEAN諸國의 第1의 貿易相對國임과 同時에, 美國의 ASEAN地域에 對한 民間投資도 每年 增加趨勢에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의 美國 民間投資는 刮目할 程度의 增加를 보이고 있다.

現在 美國과 ASEAN諸國間의 經濟協力에 있어서의 争點은 前述한바와 같이 美國은 ASEAN諸國이 現 「브레튼·우드」經濟體制下에 協力, 第三世界와의 關係에 있어서 緩衝役割을 해줄 것을 期待하고 있지만, ASEAN의 立場은 1976年 "77구룹"에 依해서 採択된 「마닐라 宣言」을 遵守할 것을 美國側에 分明히 밝힌바 있다. 아울러 美國은 ASEAN諸國과의 經濟協力서 있어서 ASEAN諸國全體를 相對하는 것보다도 個別國家와의 雙務的 關係를 願하고 있지만 現在 東南亞의 急激한 情勢變化를 勘案, ASEAN이 地域協力 機構로서 寄與할 수 있는 地域安定을 爲하여 ASEAN의 經濟的

成長을 支援하고 있다. ASEAN 과의 經濟關係會議를 통한 貿易對話의 開陳도 이와 같은 美國의 ASEAN 에 對한 支援等의 一環으로 判斷된다.

(3) 小結語 - 美國의 對 ASEAN 政策

以上에서 우리는 美國의 ASEAN 地域에 對한 戰略的 및 安保的 利害關係와 經濟的 利害關係를 概括的으로 살펴 보았다.

過去와 같이 美國이 東南亞地域內的 紛爭에 軍事介入과 같은 積極的 介入을 試圖할 것이라는 期待는 할 수 없지만 美國의 東南亞 特히 ASEAN 諸國에 對한 政治的 및 經濟的 側面에서의 利害關係가 결코 無視될 수 없는 것임을 觀察했다.

따라서 現在 美國의 對 ASEAN 政策은 急變하는 東南亞情勢를 勘案 ASEAN 이 独自の 論理로 發展해 나갈 수 있도록 側面에서 支援 - 主로 經濟的 支援 - 을 함과 同時에 ASEAN 諸國에 重大威脅으로 登場한 「인도차이나」 共產國家와의 關係改善 特히 「베트남」과의 關係改善을 摸索, 一面 ASEAN 地域에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는데에 間接的으로 寄與했음은 勿論이다.

現時點에서 美國이 自身을 가지고 ASEAN 을 支援할 充分한 根拠가 있다. 即 ASEAN 諸國이 中立을 表明하고 있지만 西方側에 더 기울었을 뿐 아니라 ASEAN 諸國間의 文化的 및 經濟的 協力은 結局 開放經濟體制, 西歐中心의 文化 및 西歐와 連結된 經濟體制를 招來할 것이라는 期待와 이러한 期待는 美國의 國家利益에 符合한

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미국은 ASEAN이 주장하는 東南亞地域의 中立化와 經濟的 自立에 同調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멜빈·클토프」(Melvin Gurtov) 教授가 指摘한 바대로 미국의 東南亞地域의 中立化에 對한 同調는 單純한 支援者일 뿐이지 後見人이 아니라는 점에서 注目을 要한다. 後見人의 役割은 地域内 紛争에 말려 들 危險을 內包한다는 점에서 미국은 이 地域의 中立化와 이의 維持를 東南亞 自身이 解決해야 할 課題로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나. 蘇聯과 ASEAN 과의 關係

「인도차이나」3 個國 共產化後의 東南亞의 새로운 情勢下에 蘇聯은 東南亞에서의 中共勢力 팽창저지 및 미국과 日本의 役割이 增大하는 것을 防止하면서 自國의 勢力을 서서히 增大시키는데에 힘써왔다.

특히 蘇聯의 ASEAN에 對한 態度는 初期 ASEAN이 軍事同盟으로 發展할 것이라는 判斷下에 이를 非難하였고 1971年 「말레이시아」의 提案으로 ASEAN 地域의 中立化方案이 論議되었을때는 이를 支持하는등 一慣性을 欠하고 있다.

1977年 「쿠왈라 룸플」頂上會議에서 ASEAN 諸國 頂上들에 依한 東南亞地域의 「平和, 自由, 및 中立化」構想에 關해서 蘇聯은 그와 같은 構想이 自國이 提案한 “아시아集團安全保障制度”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 와 類似하다는 判斷에서 ASEAN의 中立化方案을 支持하였다. 그러나 그後부터 蘇聯은 ASEAN이 漸進적으로 軍事同盟으로 變質되고 있다고 非難하고 있다. ASEAN諸国과의 關係惡化를 피하기 위하여 蘇聯은 間接적으로 美国 日本 및 中共이 ASEAN國家에 依한 同地域의 平和, 自由 및 中立化方案을 破壞하고 있다고 非難하고 있다.

아울러 蘇聯은 美国 및 日本에 依한 同地域에 대한 방대한 量의 援助와 投資가 ASEAN諸국의 美·日本에의 後屬關係를 深化시킴은 勿論, 이로 因하여 美·日의 同地域에 對한 干涉의 幅을 넓히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아울러 蘇聯은 中共이 公開적으로 ASEAN을 支持하고 있는데 對하여 社會主義國家群의 敵으로 非難하고 있다.

蘇聯의 이와같은 ASEAN에 對한 反應은 蘇聯의 ASEAN地域에 對한 戰略的 利益의 側面에서 把握될 수 있다.

最近 ASEAN諸国間의 經濟協力強化와 政治的 協力을 통한 結束力을 蘇聯의 主張에서는 自國이 提案한 集團安全保障體制에 挑戰하는 對置勢力 (Counterpoise)로 認識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蘇聯의 ASEAN關係는 只今까지 別로 두드러진 特記할 事項이 없다. 蘇聯은 ASEAN國家 特히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와의 多小間의 經濟交流를 빼놓고 限定된 形式的인 關係만을 維持해 왔다.

따라서 위에서 본바와 같은 蘇聯의 ASEAN에 對한 非難 또는

支持등의 態度는 狀態에 따라 變更되는 것임을 把握할 수 있다.

그러나 現在 蘇聯의 東南亞政策은 西方側의 영향력이 큰 ASEAN 諸國에 對한 直接的인 影響力行使보다는 「인도차이나」의 共產國家 特히 「베트남」의 거점確保를 通하여 中共勢力의 팽창을 저지하고 漸進的으로 非共產 ASEAN 國家에 浸透하려는 기세를 보인다.

蘇聯은 이미 「베트남」을 코메콘 (COMECON)에 加入시켰고, 이로써 蘇聯은 「베트남」에 非常事態가 發生하였을 時 언제라도 「브레즈네프·독트린」을 내세워 이에 介入할 수 있는 論拠를 마련하고 있다.

이와같이 現在의 蘇聯의 東南亞政策의 主軸이 「인도차이나」에서의 中共과의 競合關係에서 「베트남」을 自國의 同盟國으로 만드는 데에 置重하고 있으며 對 ASEAN 關係에서는 周邊的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 實情이다. 特히 蘇聯側으로는 ASEAN 諸國의 「平和, 自由 및 中立化構想」을 自國의 集團安全保障體制構想으로 끌어들이려는 努力을 繼續할 것이지만, 現在 ASEAN 諸國의 中·蘇紛爭에 關한 關心과 美國 및 日本과의 經濟的 유대強化로 미루어보아, 이러한 蘇聯의 構想이 成功되리라고는 期待하기 힘들다.

다. 中共과 ASEAN 과의 關係

「베트남」戰爭終了後 中共의 東南亞政策에 關하여 美國의 「피터·반·네쓰」(Peter Van Ness) 教授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基本假定을 提示한 바 있다.

첫째로, 적어도 가까운 將來에 있어서 中共은 東南亞地域에 對한 軍事的 膨脹을 試圖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앞으로 相當한 期間에 이르기까지 蘇聯이 中共의 對東南亞外交政策上 큰 比重을 가진 關心對象으로 남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이 東南亞諸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第一次的인 優先權을 갖는 目標은 이 地域에 蘇聯이 軍事基地를 設置하거나 蘇聯이 이들 東南亞諸國과 軍事同盟締結을 防止하는 것이 되어 왔다.

특히 ASEAN 諸國과 關聯, 蘇聯이 自國이 提案한 集團安全保障體制와 ASEAN에 依한 「平和, 自由 및 中立化」構想을 連結시키려는 試圖에 對하여 中共은 SEATO 安保條約과 類似한 것으로 變型시키려는 努力이라고 蘇聯을 非難하고, ASEAN 國家間의 地域協力과 中立化에 基盤을 둔 自體的 安保體制的 構築만이 그들의 安保를 最大限 保護하는 것이라고 力說하고 있다. 심지어 中共은 蘇聯에 對한 東南亞地域의 견제세력 (Counterveiling Force) 으로의 役割이 可能하다면 東南亞地域에의 美軍駐屯을 복인할 程度로 蘇聯의 東南亞地域浸透努力에 關하여 關心을 表明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中共은 美國과 日本의 ASEAN 諸國에 對한 經濟的

浸透의 幅이 深化되고 ASEAN諸국이 이들 國家에 對한 從屬度가 커지는 傾向에 對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趨勢로 判斷하고 있다.

現在 中共은 最小限 ASEAN地域에 超強大國들에 依한 支配나 패권競爭이 없을 境遇 나아가서 이들 ASEAN諸국이 순수하게 第三世界와의 紐帶를 強化시킴으로써 中共의 利益에 符合될 境遇, 이들 ASEAN諸국의 經濟力의 強化와 함께 한 地域單位로서 發展되어 나갈 수 있도록 支援할 用意이 있는것 같다.

中共의 ASEAN에 對한 最優先目標은 이들 ASEAN諸國을 自國便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지만, 이것이 不可能할 境遇, ASEAN機構가 超強大國 特히 蘇聯의 政策道具化 하는것을 防止하는 것이다.

現在 中共은 ASEAN이 第三世界內의 여러 機構와 마찬가지로 強力하고 獨自的인 地域協力機構로 發展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바로 이런 意味에서 ASEAN의 「平和, 自由 및 中立化」方案을 支援하고 있다.

中共은 ASEAN 5個國中 4個國 -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랜드」, 「싱가폴」-와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 「싱가폴」과는 正式 外交關係를 갖고 있지 않지만 1976年 李觀權首相의 中共 訪問을 契機로 國交正常化한 것과 다름없는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특히 中共은 이들 ASEAN國家와 修交하는데에 있어서 이들 國家內에 거주하는 華僑 및 民族解放戰線運動과 關聯, 內政不干涉原則을 遵守할 것을 約束하였다.

이밖에 中共의 ASEAN에 對한 關心은 地理的 引接性에 연유된다.

中共은 周边國家들이 中共에 友好的이기를 바랍과 아울러 中共에 通하는 海路 및 航路가 友好國에 依해서 統制되기를 希望하고 있다. 이와같은 理由로 中共은 ASEAN 諸國이 中共에 對해서 友好的 이기를 바라며, 最小限 中立的 또는 非同盟의 主張을 固守할 것을 願하고 있다.

특히 今年에 들어와 「베트남」-「캄보디아」紛爭과 中共-「베트남」紛爭의 發生을 契機로 「인도차이나」共產國內紛과 中·蘇對立이 連結된 가운데 中共은 對ASEAN 外交를 活潑히 展開하고 있다. 今年 3 월에 李先念副首相이 「필리핀」을 訪問하였고, 11 월에 鄧小平副主席이 「타이랜드」 「말레이시아」 및 「싱가폴」을 歴訪하였다.

反面 「베트남」도 從來의 ASEAN 에 대한 敵對的 態度를 變更, ASEAN 諸國과 關係改善을 試圖하고 있어 ASEAN 을 둘러싼 中共과 의 치열한 競合關係가 展望된다.

要컨데 中共의 對ASEAN 諸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最大關心을 蘇聯 勢力浸透의 防止이고 아울러 中共은 自國의 非同盟 第三世界外交의 姿勢와 ASEAN 地域內에 어떤 “超強大國의 霸權”(super hegemony) 에도 反對한다는 立場에서 ASEAN 의 中立化方案에 支持하고 있다.

앞으로 中共은 自國의 近代化促進을 위하여 東南亞諸國 특히 ASEAN 諸國과의 經濟的 交流에도 努力을 集中할 것으로 豫想된다.

라. 日本과 ASEAN 과의 關係

東南亞 特히 ASEAN 地域은 政治・經濟的 側面에서 日本에게 대단히 重要的 地域임은 勿論이다. 經濟적으로 이 地域은 日本의 主要 資源의 供給地로서, 製造商品 販賣地로서 또한 主要한 投資對象地로서 日本의 重要 關心地域이다. 아울러 日本은 油類 및 主要 原資材의 輸送과 關聯, 「마라카」 및 「롬보크」海峽에 引接되는 ASEAN 國家들의 政治的 安定에 깊은 關心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同地域의 政治的 不安定으로 因하여 위의 海峽의 通過가 不可能할 境遇 日本經濟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現在 日本은 ASEAN 의 第1 交易相對國일 뿐아니라 投資部門에 있어서도 第1 投資國이다.

1976 年 日本과 ASEAN 諸國간의 交易 總額數는 138 億弗에 達하여 이것은 日本 總貿易量의 1/10 에 該當하는 것이다. 日本에 對하여 ASEAN 市場은 西獨, 英國, 佛蘭서를 包含하는 EC 보다 더 큰 市場이다. 民間投資部門에 있어서도 日本・民間投資의 20 %가 ASEAN 地域에 投資되고 있다.

이와같은 東南亞地域 特히 ASEAN 地域에 對한 日本 經濟의 過度進出은 政治的 問題가 될 程度로 심각하다. 只今까지 日本은 ASEAN 地域의 重要性에도 不拘하고 ASEAN 에 對한 政策을 樹立하지 않고 있었다.

日本은 ASEAN 諸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團體的 交渉 (multilateral

bargaining) 보다는 個別國家와의 雙務的 交渉을 通해서 自國의 利益을 極大化시키는데에 關心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베트남」戰爭의 終了와 함께 美國의 勢力이 後退하자 ASEAN 諸國은 日本이 從來와 같은 自國의 經濟利益中心의 立場을 떠나서 ASEAN 에 對한 公式的인 支援(formal commitment)을 要請하기 始作했다. 이와 더불어 ASEAN 諸國이 1976年 第1次 「발리」 ASEAN 頂上會議 및 1977年 「쿠알라룸플」에서 第2次 頂上會議를 開催하고 地域協力機構로서 새로운 發展의 기틀을 마련하자 日本에서도 ASEAN에 對한 새로운 關心을 表明하기 始作했다.

1976年 2월에 開催된 「발리」 ASEAN 頂上會議에서 當時 日本의 外相이었던 「기야찌·미야자」氏는 公式的으로 ASEAN의 重要性을 認定하는 다음과 같은 演說을 行한바 있다.

「日本政府는 ASEAN이 樹立된 以後 最初로 政府首腦級會議를 開催하여 地域의 紐帶와 協力을 強化하려는 意圖를 再確認한데 對하여 그것이 아시아의 安定과 來來의 繁榮에 寄與할 수 있다는 點에서 환영한다. "東南亞의 友好 및 協力에 對한 條約"이 이 會議에서 締結됨을 契機로 ASEAN은 이 地域에서 큰 役割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같은 「미야자」外相의 ASEAN의 重要性에 關한 發言과 同時에 日本의 重要한 「메스메디아」는 거의 全部가 「발리」 ASEAN 頂上會談과 關聯, ASEAN의 業績을 높이 評價했고 東南亞에

新時代가 도래하였다고 報道했다. 이로부터 日本의 소위 "아세안 가이코" 即 "ASEAN 外交" 가 始作되었다.

그러나 日本의 ASEAN 에 對한 本格的인 關心과 支援約束은 日本의 「후쿠다」首相이 1977年 「쿠왈라룸플」에서 開催된 「ASEAN 頂上會議」에 參與時, 前章의 ASEAN 의 프로젝트現況의 檢討에서 본 바와 같은 ASEAN 의 5個프로젝트에 對한 10億弗의 援助約束과 「후쿠다」首相이 「ASEAN 頂上擴大會議」參與 直後, 「버마」를 包含한 ASEAN 5個國 巡訪中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發表한 「후쿠다·독트린」에서 비롯된다.

「후쿠다·독트린」은 다음과 같은 3個의 原則을 表明한 것이다.

첫째, 日本은 軍事強大國이 되기를 願치 않으며 核保有國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日本은 同等한 「파트너」의 자격으로 ASEAN 과의 더욱 緊密한 關係를 強化할 것이다.

셋째, 日本은 「인도차이나」의 共產國家와 關係改善을 함으로써 東南亞의 平和와 繁榮에 寄與할 것이다.

이와같은 「후쿠다·독트린」을 表明함으로써 日本政府는 自國이 軍事強大國 및 核保有國이 될 意思가 없음을 明白히 하여 日本이 東南亞 特히 ASEAN 諸國에 對하여 安保威脅國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確認시킴과 同時에 「인도차이나」共產國家와 關係改善을 試圖함으로써 間接적으로 ASEAN 地域의 平和와 繁榮에 寄與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후쿠다·독트린」發表後 日本은 ASEAN 諸국에 對한 經濟援助提供에 最重點을 두고 이와 아울러 「인도차이나」3 國에 對한 援助構想을 내놓았는데 ASEAN 諸國은 이와같은 日本의 「인도차이나」共產國에 對한 援助構想에 對하여 東南亞의 情勢安定이라는 點에 비추어 効果적인 方案이라고 好意的인 反應을 보였다.

日本은 「후쿠다·독트린」을 契機로 ASEAN에 對한 從來의 消極적인 姿勢에서 벗어나 보다 積極的 立場에서 ASEAN의 發展을 위한 支援公約 - 주로 經濟的 公約 - 을 했다. 日本은 ASEAN 周邊의 어떤 強大國보다도 地域中立化에 對해서 덜 威脅的이기 때문에 東南亞地域 特히 ASEAN 地域에 對해서 經濟援助를 通하여 協力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日本의 ASEAN에 對한 支援能力에도 不拘하고 ASEAN에 對한 日本의 增大된 經濟的 役割의 成功与否는 日本이 얼마나 성실하게 對 ASEAN 公約을 遵守함으로써 現在 ASEAN 諸國內에 팽배되어 있는 日本의 過度한 經濟的 浸透에 對한 우려를 除去하고, 나아가서 ASEAN 諸國의 日本에 對한 信賴感을 回復하느냐에 달려 있음은 勿論이다.

現在 ASEAN 諸國은 同地域의 發展을 위하여 日本의 積極적인 參與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들 國家들은 日本爲主의 參與가 아니라 ASEAN 諸國의 發展에 부합하는 日本의 增大된 參與를 要請하고 있다.

또한 政治的 側面에서 日本은 東南亞地域에 對한 軍事的 介入手

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쿠다·독트린」에서 밝힌바와 같은 對「인도차이나」共産國家와 關係改善을 試圖함으로써 ASEAN 諸國과 「인도차이나」共産國間의 仲介的 役割을 遂行하는데 있어서 容易한 立場에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日本의 이 地域에서의 政治的 仲介者의 役割은 周辺 強大國 特히 中·蘇의 치열한 競合關係로 因하여 極히 制限的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展望된다.

마. ASEAN 諸國의 対応

「베트남」戰爭이 終熄되고 「인도차이나」에 3 個의 共産國이 登場함으로써 ASEAN 諸國은 各已 變化된 政治的 現實에 適應할 必要性을 느꼈음은 勿論이다. 「타이랜드」는 緊急한 國內的 政治狀況으로 因하여 美國과의 軍事的 紐帶關係를 끊는 한편, 中共과 「인도차이나」共産國家와의 關係改善을 摸索하였다. 東南亞情勢의 急激한 變化에 反應하여 모든 強大國과의 “等距離外交”(equidistance diplomacy)는 「타이랜드」뿐 아니라 다른 ASEAN 國家에도 重要한 政治 “잇슈”가 되었다. 「타이랜드」에 있어서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이 中共과 「베트남」과의 關係改善을 試圖하였다. 단지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는 相異한 國內 事件으로 이와같은 變化된 政治現實에의 適應을 주저하였다.

現在 ASEAN 諸國에 있어서 支配的인 政治的 主題(dominant

political theme)는 어떻게 各會員國에 有利하게끔 모든 周邊強
大國의 "均衡된 參與" (a balanced presence)를 시키느냐 하는
問題인 것 같다. 勿論 以外에 第1次 「발리」頂上會議 및 第2次
「쿠알라룸플」頂上會議에서 論議된 「平和, 自由 및 中立化」方案도
題起되었지만 理論的 次元에서가 아니라 現實面에서 前者의 ASEAN
諸國 各國의 外交路線에 反映되고 있는 것이 現實인 것 같다.

그러나 現實面에서 強大國의 "均衡된 參與" 論議에도 不拘하고
現在 ASEAN은 政治的 安保的 諸般 理由는 勿論 經濟的인 理由로
해서 西方側에 기울져 있다. ASEAN 5個國은 開放社會體制를 갖고
있음은 勿論 5個國 全部가 어느程度的 多元主義的 要素와 政治的
競爭을 許容하고 있고 程度的 差異는 있지만 모두가 強한 反共國
家들이다.

이들 ASEAN 國家들은 地域內의 急激한 情勢變化로 因해서 共產
主義國家들과 "等距離外交"를 내세우고 關係改善을 試圖하고 있지
만 國內的으로는 共產主義運動에 對해서 強한 抑制政策을 쓰고
있다.

現在 ASEAN 諸國과 周邊勢力과의 關係를 단적으로 規定하기에는
關聯된 變數間의 關係가 너무도 流動的이다. 即 ASEAN에 對한
美·日의 經濟的 支援과 「인도차이나」半島를 中心으로 한 中蘇競
爭, ASEAN 各國의 美·日·中·蘇 四強에 對한 等距離外交維持 및
ASEAN과 「인도차이나」와의 關係推移등 諸般 變數間의 關係가
아직도 流動的이고 不確實 (uncertain)한 關係에 있다.

4. 結論 ; 要約 및 展望

(1) 美国은 「베트남」戰爭에서 後退했지만 ASEAN 地域에 對한 戰略的 및 安保的 次元에서의 利害關係는 勿論, 漸增하는 經濟的 紐帶關係로 ASEAN에 對한 繼續的인 關心과 經濟的 支援 및 交易을 擴大해 나갈 것으로 展望된다.

특히 ASEAN 地域의 政治的 安定을 위해서 對「인도차이나」와의 關係改善을 摸索할 것으로 展望된다. 現時点에서 同地域에 어떤 事態가 發生할 경우, 美国이 軍事的 介入은 未知數에 속한다. 그러나 美国은 ASEAN의 地域協力을 통한 各國의 經濟發展의 達成과 貧困의 除去가 이들 ASEAN 國家가 當面하고 있는 安保威脅-外部 勢力의 支援을 통한 各國의 政治的 不安地域에서 發生하는-을 對應하는 最上策이라고 믿고 主로 經濟的 支援을 통한 ASEAN의 發展과 政治的 結束力을 支援할 것으로 展望된다.

(2) 現時点에서 蘇聯의 ASEAN에 對한 關係는 分明치 않다. 蘇聯은 앞으로 自國의 提議한 "아시아 安全保障體制" 構想에 ASEAN의 「平和, 自由 및 中立地域」化 方案을 끌어 들이려고 하지만 實現性이 없다고 判斷된다.

蘇聯은 「인도차이나」에서의 中共과의 치열한 競合關係를 벌이고 있으며 이 結果 ASEAN 地域과는 對照的으로 「인도차이나」國家間의 紛爭이 進行되고 있다.

이와같은 「인도차이나」國家간의 緊張激化가 ASEAN 諸國의 不安要因이 되고 있다. 特히 「타이랜드」北部地域의 叛徒勢力에 對한 「베트남」의 支援은 「타이랜드」의 政治的 不安의 要因이 되고 있어 ASEAN의 安保威脅이 되고 있다.

蘇聯의 中共封鎖政策의 一環으로 考慮되고 있는 「베트남」에의 軍事基地設置 可能性은 中共의 最大關心事로서 「인도차이나」에서 中・蘇競合關係는 더욱 弛열해질 것으로 展望된다.

(3) 中共의 對ASEAN諸國과의 關係에 있어서 最大關心은 蘇聯勢力의 浸透防止임으로 이를 위하여 集中的인 外交的 努力을 展開할 것으로 展望된다. 아울러 中共은 東南亞地域을 自國의 勢力圈 (Sphere of influence)으로 考慮하기 때문에 어떤 超強大國의 霸權에도 反對하는 立場을 取할 것으로 豫想된다.

現在 中共의 對ASEAN外交는 最小限 ASEAN地域의 中立維持와 最大로 自國에 友好的 ASEAN維持라는 政策의 選擇範圍內에서 積極的 對ASEAN外交를 展開할 것으로 展望된다.

아울러 中共은 그들 從來의 非共產ASEAN國家內의 革命運動에 對한 支援政策을 修正하고 政治間 正式外交에 置重할 것으로 展望된다. 特히 中共의 四大近代化計劃의 推進은 이들 ASEAN諸國과의 經濟交流를 擴大시킬 것으로 展望된다.

(4) 日本은 「후쿠다·독트린」을 契機로 ASEAN에 對하여 經濟 援助, 投資 및 交易增大의 方法에 의한 經濟協力으로 ASEAN을 支

援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日本의 ASEAN에 대한 經濟的 役割의 成功与否는 日本이 誠實하게 對ASEAN公約을 遵守함으로써 ASEAN諸国 内部에 팽대되어 있는 日本의 過度한 經濟的 浸透에 대한 우려를 除去하고 ASEAN諸国으로부터 信賴度を 回復하는데 달려 있다.

日本은 經濟的인 理由뿐 아니라 「마라카」 및 「롬보크」海峽과 關聯, ASEAN地域의 政治的 安定과 平和에 至大한 関心を 가지고 있어, 上記 海峽에서의 自由로운 輸送通過를 위해서 積極적으로 ASEAN地域의 平和維持에 努力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러한 努力의 一環으로 ASEAN安保環境에 重大 威脅이 되고 있는 「인도차이나」共産國家와 關係改善을 摸索할 것으로 展望되며 이들과 ASEAN諸国과의 關係改善을 위한 仲介的 役割을 試圖할 것으로 展望된다.

(5) ASEAN은 流動的이고 極히 不確實한 諸般 情勢推移속에서 ASEAN의 政治 및 安保의 方向을 摸索할 것이다. 現在 ASEAN은 公式적으로 同地域의 「平和, 自由 및 中立化地帶」의 概念을 設定하고 있지만, 現實적으로 「베트남」戰爭 終了後 ASEAN諸国이 取하고 있는 外交的 姿勢는 周辺 強大國에 對한 "等距離" (equidistance) 維持와 이들 強國의 "均衡된 參與" (a balanced presence)로 要約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ASEAN의 姿勢는 보다 確固한 ASEAN의 政治的 方向設定時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展望된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ASEAN은 政治, 安保 및 經濟 等 諸般 理由로 西方側에 기울어져 있으며 앞으로 더욱 그러한 勢勢로 나갈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ASEAN은 現實的인 制約으로 政治 및 安保協力體制로서 보다는 現在와 마찬가지로 經濟協力體制가 主軸이 될 것으로 展望된다.

끝으로 「스칼라피노」教授의 ASEAN의 將來에 관한 意見을 紹介함으로써 이 結論을 맺으려고 한다.

“ ASEAN의 運命은 現在 東南亞地域의 統制下에 있지 않은 外部 強大國間의 政治・安保問題의 歸趨에 달려 있다…… ASEAN會員國으로 唯一의 論理的이며 充分히 地域的인 表現은 經濟的 側面에서 發見된다. 本質的으로 ASEAN의 直接的인 存在理由 (raison d'être)는 經濟分野에 달려 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生存与否는 이 地域全體의 政治的・安保的 趨勢에 달려 있다.”

~~An~~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ASEAN and Major Powers (USA, USSR, PRC, and Japa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ASEAN and its circumstantial major powers, such as USA, USSR, PRC, and Japan, with an emphasis on identifying the future trends of ASEAN's relationships with these major powers.

When ASEAN was created in 1967 by five indigenous Southeast Asian countries (Indone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it was designed to indirectly promote peace and stability in the ASEAN region, mainly through cultural and economic cooperation among the countries. However, since the ASEAN Summit in Bali in 1976, ASEAN has indeed entered a new era when the five ASEAN leaders signed the Association's first political treaty, thereby demonstrating the desire for greater solidarity among the member countries.

But we have found from this study that the main thrust of ASEAN as a regional organization has mainly still been directed toward cultural and economic cooperation. From this study, we have derived the tentative conclusion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SEAN and the four major powers as follows: First, the economic involvement of the U.S.A. in the ASEAN region is steadily increasing; nor has there been any diminution in its 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 in the region, although there remains unclear the American military commitment to the region. At present, the U.S. begins to accept the significance of ASEAN as a crucial regional body; the U.S. helps and will help ASEAN seek its own logic, through means of economic cooperation, for it knows that ASEAN is closely linked with the West.

Second,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ASEAN region, the USSR is regarded as a relatively distant power so far. Russia has shown diplomatic skills in regard to "ASEAN's neutralization" proposal v.s. its concept of the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 which has failed to make any significant headway in the region. There is a growing concern in the ASEAN region as well as in the outside of it that Hanoi will be enlisted as a major instrument in the U.S.S.R.'s drive to retain its influence in Southeast Asia beyond the Vietnam War.

Third, the foremost concern of China could be to win over ASEAN as active allies to its cause. But if it is not attainable, China will be likely to want to prevent the Organization from being used as a tool of superpowers, particularly the USSR. At least, what China wants to emerge out of ASEAN is an organization of strong, independent countries which strives friendly and consciously for the interests of the Third World. In this sense, Peking supports the concept of ASEAN as a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show a more active interest in the ASEAN region.

Fourth, beginning with the so-called "Fukuda Doctrine" Japan assumes its leadership role in the ASEAN region, in a striking contrast with its non-policies toward ASEAN in the past. Japan's tentative commitment of one billion dollars in loans to ASEAN's industrial complementation projects is an initial indication of its recognition of ASEAN's collective needs as well as the leadership Tokyo wants to maintain in ASEAN. The ASEAN countries would certainly like to see increased participation by Japan in the region but on ASEAN terms.

Finally, confronting with intra-and extra-regional influences, the ASEAN countries today appear to be accepting the presence of all of the major powers, with "equidistance" posture. However, the current tilt with ASEAN is clearly toward the West for 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and security reasons. This trend is likely to continue for the future. It is expected that ASEAN as a regional body of economic cooperation will grow fast. Yet, its ultimate survival hinges upon political and security trends in the region as a whole which are currently not under regional control in the primary sense.